

06, 18, 2006

말씀보존학회 김정환 목사님께.

김정환 목사님 안녕 하십니까?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성사 회복의 주인 이시며 오직 뜻깊은  
 구원과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총을 들며 인사 올립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나이 마흔 여섯이 되었는데 이 [redacted] 라는 죄인 중에 죄인 이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한국에서  
 부터 본가로 배우자 못하느라 각지 생활과 영벌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 어제 어제 눈(?)이 좋아 미국  
 이라는 땅에 왔지만 배운게 없으 학년질이 부랑이라 구급사 버드며 열골에 총을 맞고 혼수 상태에서 구급  
 을 만나 구원을 받은 못한 중입니다. 먼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무례하게 큰물 든  
 어뵈는 중이고 한어 신어 계시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서입니다. 사실  
 제가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킹 제임스 성경을 사물려 왔었는데 개역 성경에 많은 성경 구절들이 삭제된  
 것이라 그 킹 제임스 성경과 많은 차이점이 있다.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목사님께서 신문에 매주 종교간에  
 관여 비보 계시는 성경 예전의 구절들을 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글과 영어가 함께 실린 킹 제임스 성경  
 을 한글 구할수 있을까 하고 궁리를 하던 중에 편지를 써서 목사님께 한글 부록을 해 보라 하고 여러번  
 마음을 써고 있었지만 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다. 그 이윽고 미국에는 무모모로 안게서도 학 하나  
 있는 동생도 지르 코르코에 저와 같이 관려 있습니다. 제가 약속된 드물이나 보상이나 성경을 살수 있는  
 돈을 없으 생각 있습니다. 그저 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윽고 형체를 불구하고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한글 본에 구입사 하고 부록을 드릴려고 합니다. 귀는 지난 이젠 구급사 버드며 워십 도면  
 여를 라이프를 받은 무기수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이 되어 미친것은 하며 들다 다니아가 왼쪽 눈에 총을 맞고  
 혼수 상태에 있을때 의사들이 다 큰 죽을 사람이르 스올 든 상태에서 구원의 크신 은혜 얻어 살다나  
 영으로 받은 연명을 감사 하게 살아가고 있는 죄인 이지요. 미국 반결은 땅까지로 두 형무소 안에서 살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서 받을수 없으 구원수 없었던 절망과 범죄나로 기쁨이 생겼는 삶을 지금은  
 살수 있습니다. 큰라 저들이 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일 매달 제가 원했던것을 다 칭겨주기로  
 보살펴 인드 하시 감사 할 따를 이지요. 목사님 주면서 외람되르 송구 하오나 영어와 한글이 들어  
 있는 킹 제임스 성경을 한글 보비구신다면 그 은혜 인직하며 살 수용하겠습다. 그리고 행여 북  
 보배시어라고 이 죄인의 편지를 미쁘신 용이 끝까지 읽어 주셨으니 감사 하옵습다. 늘 구원의 영화  
 와 회개와 은혜와 축복이 목사님과 가진 그리스도 코르코에 사역에 범죄로써 임하시 주옵시. 인연히  
 계십시오.

하나만 주 코르코에서